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㉓	㉔	㉑	㉔	㉓	㉓	㉑	㉑	㉑	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㉓	㉒	㉔	㉒	㉔	㉒	㉑	㉒	㉒	㉔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4	재무이론	3
정책이론	4	행정환류	-
조직이론	4	지방자치론	1
인사이론	4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7	생소한 문제	3	100점 방지	0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5점 이상
분발대상: 75점 이하

▶ 총평

이번 시험은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생소한 문제가 3문제 있었기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이하 「기출문제」)만으로 풀 수 있고, 나머지 3문제 중 2문제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득점 기준은 95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가 쉽지만 그렇다고 못 푸는 것은 아닌, 한 마디로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의 점수대는 “집중해서 강의 듣고, 당일복습 철저히 하고, 기출문제 회독수를 늘린다”라는 수험생으로서 기본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직 절대적인 공부기간이 짧아 반복회수가 부족하여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는 있겠지만 공부기간이 1~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점수도 낮다면, 그동안 객관식 행정학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 공부한 겁니다. 후자인 경우는 해설 강의를 꼭 듣고 공부방향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책형 기준 9, 17, 19번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기출문제 회독만으로 맞출 수 있고 합격하려면 맞춰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9, 17번은 별도의 대비 없이도 그동안 함께 배워왔던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정답률이 낮지 않을 겁니다. 19번만 탄력근무제의 세부유형 암기 여부에 따라 정답률이 갈립니다. 이 정도 지엽적인 내용은 당연히 틀려도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대충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에 집중하여, 다른 문제를 다 맞추고 95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분들이든 아쉽게도 약간 부족했던 분들이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느 경우든 일단 잠시 수험공부에서 떠나 머리와 마음을 식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잠시라도 수험생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제3자의 눈으로 자기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온갖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찬 지금과 달리 더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부족했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 부족한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지금 끝나는 것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스스로도 기회를 만들 겁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025 본질적 이념 : 공익

문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암기용 해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 과정설

<이해용 해설>

ㄱ (○)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의 절대적·보편적 가치라고 본다.

ㄴ (○), ㄷ (×) 과정설은 공익을 다양한 사익 간 조정 및 타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 조정 및 타협 과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 실체설을 주장하는 학자에는 플라톤(Plato), 루소(Rousseau) 등이 있고, 과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슈베르트(Schubert), 벤틀리(Bentley), 트루먼(Truman) 등이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227번(2011 국회8급)]

공익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선형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
④ 공익의 과정설은 개인주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기출에강한행정학 226번(2019 국회9급)]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된 결과가 공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88 동기부여 : 내용이론-성장인모형

문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독
- ② 대인관계
- ③ 보수
- ④ 성취감

<암기용 해설>

④ 성취감

▶ 동기요인

<이해용 해설>

- ① (○), ② (○), ③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직무환경과 관련된 감독, 대인관계, 보수 등이 있다.
- ④ (×) 직무 자체와 관련된 성취감은 충족되었을 때 만족을 느끼게 하는 동기요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838번(2021 경찰간부, 2016 행정사, 2007 국회8급)]

허즈버그(F.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Point 092 리더십 : 현대적 리더십

문 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암기용 해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전통적 관료제의 리더십(거래적 리더십)

<이해용 해설>

- ㄱ (○), ㄷ (○)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보는 리더십을 말한다. 이는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부하에 대한 존중과 봉사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더십이다.
- ㄴ (×), ㄹ (×)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을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하는 리더십은 전통적 관료제의 리더십(거래적 리더십)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889번(2013 지방9급)]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서번트(servant) 리더십 - 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기술에강한행정학 891번(2020 국가7급)]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Point 016 뉴거버넌스론

문 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생태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환경 요인 중시
- ②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 ④ 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암기용 해설>

- ① 행정생태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환경 요인 중시
▶ 오스본과 게블러: 신공공관리론
- ②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후기행태주의: 가치판단적·규범적 연구
-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 리그스: 생태론

<이해용 해설>

- ① (X)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는 신공공관리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 ② (X)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행태주의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한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판단적·규범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③ (X) 리그스(Riggs)와 가우스(Gaus)는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 ④ (O) 뉴거버넌스론은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정책네트워크와 후진국의 거버넌스 모델로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등을 제시한 로즈(Rhodes) 등이 제시하였으며,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협력과 협치를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1번(2014 지방9급)]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기출에강한행정학 51번 관련틀린선지(2013 행정사)]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기출에강한행정학 69번(2020 행정사)]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14 공공선택론

문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의 이동성
- ② 외부효과의 배제
-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암기용 해설>

-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이해용 해설>

- ① (O), ② (O), ③ (X), ④ (O) 티부가설(발에 의한 투표)은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다수의 지방정부, 외부효과의 부존재, 고정적 생산요소, 최적규모의 추구, 규모수의 불변, 재원은 재산세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발로 하는 투표'에 의한 지방공공재의 적정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9번 관련틀린선지(2016 국가9급)]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과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76 관료제

문 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거주의 - 조정과 협조 곤란
- ② 형식주의 - 번거로운 문서 처리
- ③ 피터(Peter)의 원리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 ④ 전문화로 인한 무능 -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암기용 해설>

③ 피터(Peter)의 원리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 관료제국주의

<이해용 해설>

- ① (○) 부처할거주의는 하위조직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자신이 소속된 하위조직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여 하위조직들 간 조정과 협조가 곤란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 형식주의는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 문서 처리 등의 형식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말한다.
- ③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는 관료들이 자신의 권한행사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것을 지칭한 관료제국주의의 이다.
- ④ (○) 훈련된 무능(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한 가지 기술만 훈련받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관료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705번(2020 경찰승진, 2011 국회8급)]

<보기>중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과잉동조(overconformity)는 관료들의 권한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704번(2012 지방7급)]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맥커디(McCurdy)모형은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본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Point 063 다양한 정책집행 연구

문 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Tip>

선지 ㄹ을 몰라도 문제해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알죠? 모든 정책집행 연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 선지 ㄹ은 몰랐어도 괜찮고 앞으로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용 해설>

-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 ▶ 하향적 접근

<이해용 해설>

- ㄱ (○)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은 하향적 접근을 전방향적 집행, 상향적 접근을 후방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 ㄴ (×), ㄷ (×)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연구와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m)의 연구는 하향적 접근이다.
- ㄷ (○)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은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강조한 상향적 접근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87번(2020 국가7급)]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기출에강한행정학 578번(2014 지방7급)]

정책집행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ㄹ. 립스키(M. Lipsky)는 상향적 접근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Point 068 정책환류**

문 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Tip>

저에게 배운 수험생은 설마 선지 ②에서 '정책의 기본 목표 유지'를 보고 틀렸다고 생각한 분은 없겠죠? 정책유지든 정책승계든 모두 정책목표는 유지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선지 ②까지 갈 필요없이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틀린 선지인 선지 ①에서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 정책혁신: 기존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이해용 해설>

- ① (X) 정책혁신은 기존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O) 정책승계는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수단의 기본적인 성격(골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변경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방식이 있다.
- ③ (O) 정책유지는 정책의 목표도 유지하고, 정책수단의 기본적인 성격(골격)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부분적으로 소폭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O)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이후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출문제>**[기출에강한행정학 631번(2006 선관위9급)]**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 ② 정책혁신은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이나 사업 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기출에강한행정학 631번 관련틀린선지(2018 국가7급)]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출에강한행정학 630번(2020 경찰승진, 2014 사회복지9급, 2014 서울7급)]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는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 ③ 정책승계

[기출에강한행정학 630번 관련틀린선지(2020 국가9급)]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Point 028 수단적 이념 : 효율성과 효과성**

문 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 ②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 ③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 ④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Tip>

'퀸과 로보그의 효과성 측정모형인 경쟁가치모형'을 퀸과 김벌리가 조직문화에 적용한 모형입니다. 전자는 꾸준히 출제되었으나 후자는 올해 처음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등장하면서 처음 출제된 것이니 그동안 대비를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가치모형', '응집성, 창의성, 생산성, 사기' 등에서 전자를 떠올렸다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 배운 것을 떠올려보면 내부과정모형-위계지향, 개방체제모형-혁신지향, 합리적목표모형-과업지향, 인간관계모형-관계지향이 어울린다는 것도 매칭이 될 겁니다.

<암기용 해설>

-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 인간관계모형(관계지향 문화)

<이해용 해설>

- ① (X), ④ (O) 경쟁가치모형에서 목표달성 수단으로 응집성, 사기 등을 강조한 것은 구성원(내부)에 대한 유연성(융통성)을 강조한 인간관계모형(관계지향 문화)이다.
- ② (O) 조직발전(외부)을 위한 유연성(융통성)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모형(혁신지향 문화)은 목표달성 수단으로 창의성, 외적 평가 등을 강조한다.
- ③ (O) 조직발전(외부)을 위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합리적목표모형(과업지향 문화)은 조직의 목표로 생산성, 능률성 등을 강조한다.

<관련 기출문제>**[기출에강한행정학 251번(2018 서울(추)7급, 2017 지방7급)]**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는 조직이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조직구조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효과성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초점	
		안정성(통제)	유연성(융통성)
구조	내부	㉠	㉡
	외부	㉢	㉣

- ② ㉡모형의 목표가치는 인적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강조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118 공무원연금

문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암기용 해설>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 평균보수월액의 산정 기간: 재직기간 전체

<이해용 해설>

- ① (○) 퇴직연금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 ② (○)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 ③ (○) 퇴직연금 기여율은 2020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현재는 9% 유지).
- ④ (×) 퇴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재직기간 전체를 산정 기간으로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61번 관련틀린선지(2015 해경간부, 2013 국가9급)]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ㄷ.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167 자주재원

문 11.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지방소득세 | ㄴ. 지방소비세 |
| ㄷ. 주민세 | ㄹ. 레저세 |
| ㅁ. 재산세 | ㅂ. 취득세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ㅂ
- ④ ㄷ, ㅁ, ㅂ

<Tip>

제가 알려진 암기 방식과 너무 똑같이 출제돼서 시험볼 때 기뻐요? “소비취레는 모두 광역자치단체!”라는 제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암기용 해설>

- ㄱ. 지방소득세
- ㄷ. 주민세
- ▶ 특별시·광역시세, 시·군세
- ㅁ. 재산세
- ▶ 자치구세, 시·군세

<이해용 해설>

- ㄱ (×), ㄷ (×)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서는 특별시·광역시세이고, 도와 시·군 사이에서는 시·군세이다.
- ㄴ (○), ㄹ (○), ㅂ (○)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특별시·광역시세, 도세이다.
- ㅁ (×) 보통세 중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자치구세, 시·군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07번(2016 지방9급, 서울7급)]

다음 중에서 특별(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 | | |
|--------|----------|
| ㄱ. 레저세 | ㄷ. 지방소비세 |
|--------|----------|

[기출에강한행정학 1708번(2007 전남9급)]

다음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해당하는 것은?

- | | |
|--------|--------|
| ㄱ. 취득세 | ㄷ. 레저세 |
|--------|--------|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Point 139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문 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ip>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 재무제표가 재무회계를 위한 기록입니다. 행정학 시험에서는 '재무회계'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출제포인트이고, 이번 문제도 이걸 알면 바로 풀립니다.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몰랐어도 괜찮고, 가계부 수준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재무회계: 발생주의복식부기
예산회계: 현금주의단식부기

<이해용 해설>

- ② (X) 재무회계는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재무상태와 미래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통제 및 회계책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O) 거래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미래의 수익과 비용도 인식할 수 있는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을 미래의 수익(자산 증가)으로 인식하고 미지급금을 미래의 비용(부채 증가)으로 인식한다.
- ④ (O) 재무제표는 모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384번(2017 국가(추)7급)]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현금흐름표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84 위원회

문 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Tip>

2021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개정법률 예상 문제로 모든 강의 및 모의고사들에서 계속 같이 연습했었죠?

<암기용 해설>

-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 자문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만 활동

<이해용 해설>

- ㄱ (O) 위원회는 복수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 ㄴ (X) 자문위원회는 위원회별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만 활동하는 위원회이다.
- ㄷ (O) 위원회는 복수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ㄹ (O)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787번(2013 해경간부)]

정책결정에 위원회제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②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③ 민주적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117 보수

문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암기용 해설>

-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 연공급: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불리

<이해용 해설>

- ① (○) 직능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노동력의 가치)에 따른 보수이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 ② (×) 연공급은 공무원의 능력이 아닌 근속연수(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불리한 방식이다.
- ③ (○) 직무급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책임도에 따른 보수이기 때문에 동일직무(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 ④ (○) 성과급은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47번(2021 경찰간부)]

다음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 ②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 ③ 연공급은 근속연수, 경력 등 축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141 예산편성

문 15. 다음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 ① 300 100
- ② 300 200
- ③ 500 250
- ④ 500 300

<암기용 해설>

- ④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이해용 해설>

- ④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03번(2019 지방9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122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문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및 검사
-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③ 중령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암기용 해설>

-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 군인: 대령 이상

<이해용 해설>

- ② (X) 군인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대령 이상의 장교이다(군무원은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95번(2011 전환특제)]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 ③ 중령 이상의 장교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

Point 038 정책학 개관

문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 ② 바우처
- ③ 조세지출
- ④ 직접대출

<Tip>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는 그동안 '직접성'에 따른 분류만 출제되었고, '강제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분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살라몬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를 암기하지 않았어도,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강제성'이 뭔지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선지 4개 중에서만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면 되잖아요! 주어진 선지 중에 '규제'만큼 강제성이 높은 게 있을까요? 바우처, 조세지출, 직접대출은 모두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강제적으로 주진 않겠죠?

<암기용 해설>

- ② 바우처
- ④ 직접대출
- ▶ 강제성 중간
- ③ 조세지출
- ▶ 강제성 가장 낮음

<이해용 해설>

- ① (O) 살라몬(Salamon)의 강제성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강제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다.
- ② (X), ④ (X) 바우처와 직접대출은 강제성이 중간인 수단이다.
- ③ (X)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가장 낮은 수단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127 수입·지출의 특성별 회계

문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 **특별회계는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님**

<이해용 해설>

- ② (X)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기금**, 차관물자대 등이 있다. **특별회계는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 ④ (O)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지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28번(2013 지방7급, 2012 경찰간부, 2009 서울7급)]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107 대표관료제

문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4일 근무

- ① 재택근무형
- ② 집약근무형
- ③ 시차출퇴근형
- ④ 근무시간선택형

<Tip>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된 것이니, 틀렸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걸 공부를 대충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에 집중하여, 다른 문제를 다 맞추고 95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해설을 통해 탄력근무제의 세 가지 세부유형의 차이점을 확인해두는 정도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② **집약근무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

<이해용 해설>

- ① 재택근무형은 탄력근무제가 아니라 원격근무제이다.
- ② 탄력근무제의 세부유형 중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을 근무하는 것은 **집약근무형**이다.
- ③ 탄력근무제의 세부유형 중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 ④ 탄력근무제의 세부유형 중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상

Point 045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문 20. 홀렛(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높음	낮음
의제설정 주도자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	(가)	(나)
국가(state)	(다)	(라)

- ① (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② (나)-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③ (다)-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④ (라)-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Tip>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알려준 것처럼 정책의제설정 유형은 “학자 이름은 신경 쓰지 말고”,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출제되는 굳히기형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구요. 이 문제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에서는 피터 메이의 유형으로 연습했던 똑같은 형태이죠?

<암기용 해설>

- ④ (라)-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 동원형: 정책의제 채택 후 공중의제화

<이해용 해설>

- ① (○) (가)는 정부 외부의 사회 행위자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외부집단들이 주도하여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외부주도형이다.
 ② (○) (나)는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내부접근형이다.
 ③ (○) (다)는 이미 공중(대중)의 지지가 높은 의제를 국가(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굳히기형(공고화형)이다. 공중(대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④ (×) (라)는 공중(대중)의 지지가 낮은 의제에 대해 국가(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동원형이다. 이는 정책의제 채택 후 공중(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22번(2016 지방7급)]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의 관여 정도	높음	낮음
정책의제설정 주도자		
민간	(가)	(나)
정부	(다)	(라)

[기출에강한행정학 421번(2020 경찰간부, 2015 서울7급)]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②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